

Silence=Death Action=Life

10월에 동인련은...

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4주년/홍석천 커밍아웃1주년 후원의밤 행사 안국동"느티나무카페"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1일 반전, 평화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동인련회원10명정도가 참가하였습니다. 무지개깃발아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한뜻으로...

24일 국제 엠네스티본부와의 미팅 조사단과의 갑작스런 미팅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동성애자인권실태에 대해 얘기하며 국제적인 연대의 끈을 잡아나가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26일 동/인/련 고승우사무국장 명동성당에서 힘있게 단식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과 국가인권위원회조직원칙용어관한특례규정(안) 공청회 참가

11/2일 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 서동진씨 단식 지지방문

11월에 동인련은...

아스트리아재단에서 선정한 특별프로젝트사업을 이행할 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2002년 첫 "겨울동성애자인권캠프"를 기획팀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12월1일(세계에이즈의날)을 기념하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친구사이/동인련이 캠페인을 기획중입니다.

더불어 함께!!!

- 무지개2001결산과 무지개2002준비를 위한 후원의밤

11월16일(금) 레스보스(신촌) 늦은6시부터

11월17일(토) 제니스(이태원) 늦은6시부터

- 무지개2002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회

장소: 신촌 민들레영토

자격: 무지개2002 스태프로 참여하고픈분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모여라! 모여라!

첫 번째 주목! <세미나>

11월10일(토) 동인련소식지토론

11월17일(토) 주제토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억압법!"

11월24일(토) 같이! 또 같이! 처음부

"동성애에 관한 모든 것을 수다떨자"

두 번째 주목! <회의>

11월24일(토) 11월 결산(월례회의)

함께하는 단체!

더불어 서는 단체!

◆상근요일: 월, 수, 금요일

◆상근시간: 오후 6시~ 저녁 10시

(금요일 오후7시-10시)

◆주소: 서울 중구 홍인동 95번지 5층

◆전화번호: Tel (02) 2235-7422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개방됩니다.

상담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근일에 맞춰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동/차/공에서 청소년보호법연구팀을

모집합니다.(구성원: 엑스존웹마스터, 버디편집장)

둘. 2002년 1월 동인련 겨울캠프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셋. 동/인/련 교육/편집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을 기다립니다.

국민은행 367-01-0050-792 (예금주:임태훈)

인
&
연
대

모
모
집
합
니
다

가입하세요...!!!

동/인/련? 함께!!!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동성애자 억압에 반대하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가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동성애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권'과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차별금지 뿐만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찾으려는 행동으로 모든 억압을 반대하고 사회에서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동성애차별정책철폐!

Dyke6

동성애자인권연대

발행인: 임태훈

편집인: 정을

성적소수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제발행1호 <http://www.outpridekorea.com>



2001년 10월 22일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60 일간의 연좌 단식 농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하였다. 이것은 지난 10월 12일 정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를 발표하여 11월 1일부터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에 항의하는 행동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치장하고 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게될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연대도 같이 단식을 결의하고 10월 26일 처음으로 내가 단식을 진행하였다. 24시간 단식을 하면서 명동성당 들머리에 앉아있으니 해가 떨어지자마자 앞뒤로 부는 칼바람이 매서웠다. 아무

데도 기델 데 없는 동성애자들의 현실이 이렇지 않을까? 도대체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자신의 정체체성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실 곳은 어디인가? 하지만 단식 농성장으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슬픈 현실을 단숨에 희망으로 돌려버렸다. 단식 농성을 결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는 게 첫째 목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농성장에 지지방문했던 20명 이상의 동성애자들은 농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또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의 회의를 통하여 릴레이 단식에 함께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것은 동성애 커뮤니티에 이번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머리의 통제권은 내가 갖고 있다. 누구도 3cm로 깎아라, 염색을 해선 안 된다고 강제할 순 없다. 또한 머리 속의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규격화시켜서도 안 된다. 더구나 동성애자들에게 그런 규격화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단식농성에서 더욱 많은 동성애자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동/인/련 임태훈 대표 제발행 축하 메세지...

동인련은 99년 다이크5호를 끝으로 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비롯 동인련 내부적으로 회원감소, 대표 및 집행부들의 책임성부재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인련은 비록 소식지로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99년 2000년 동성애 왜곡 교과서 수정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차별과 억압에 당당하게 맞서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 희망도 보이는군요. 앞으로 있을 [겨울 동성애자 인권 캠프-2002년 1월 중 개최]는 한국인권재단에서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또 미국 아스트리아 재단에서 전 세계 동성애자인권단체 중 활동이 활발한 15개 단체를 선정하여 프로젝트사업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동인련이 부여받아, 특별 펀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뻐해야할 것은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인련 활동가들이 두차례의 단식농성과 투쟁을 했던 산물입니다.

다시 한번 동인련 소식지 'Dyke'의 제발행을 자축하며, 동성애자들의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판국의 동성애자여 단결하라"

검열반대 공동행동 릴레이 단식에 동차공도 결함

■ 11. 2 서동진 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 동차공 집행위원

■ 11. 15 한체윤 버디 편집장, 동차공 집행위원

■ 11. 25 보릿자루

■ 12. 5 대학동성애자모임

■ 12. 15 박철민 친구사이

사무국장, 동차공 집행위원

앞으로 있을 단식농성에 많은

동성애자 여러분 함께 합시다.

위에 게시된 날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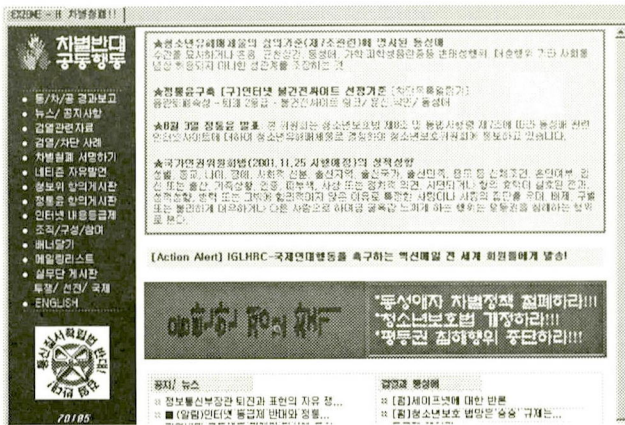
명동성당으로 모여주세요

동성애차별정책철폐!!

엑스존 음란규정! ...ing

엑스존운영자
(www.exzone.com)

지금까지 줄곧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기갈을 잊지 않고 추진되어 오며 사람 약올리던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2001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엑스존은 모든 페이지마다 그 내용에 상관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시를 눈에 띄이게 달아야 하며,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긴 하지만 정동윤의 말을 따르면 신뢰가 담보된 성인인증장치'를 달아 접속점에서 청소년들을 걸러내야만 한다. 만일 엑스존이 이와 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호응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경우! 지금까지처럼 청소년들이 엑스존에 들어와 그나마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동성애자 네티즌들과 함께 절문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정체체성을 인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형이나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한 그냥 접속해도 될 성인들조차도 항상 엑스존을 출입할 때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하는 인터넷상의 '불심검문절차'에 통과하여야 한다. 무엇이 그토록 음란해서... 그리고 또 무엇이 그토록 청



소년에게 유해해서 내 스스로 엑스존에 뺄간 따지를 불허하며 저들이 원하는 것에 호응을 해야하는지 용납이 되질 않는다. 엑스존이 4년간의 운영기간동안 '확실한 사용자등록제'를 굳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의 공유'라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었던 애초의 설립취지 때문이었다. '불법'에 기초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랬던 것이다. 초기화면에 알량한 경고를 띄우기는 하면서도 전자적 여과 장치 없이 청소년들의 출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던 이유는 정체체성의 혼란을 어렵게 겪고 있을 수도 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폐쇄되고 억압된 사회에서의 자신의 정체체성확립과 힘든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조금이나마 살아 가는 재미와 정보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엑스존은 현재 법적으로 '음란한 정보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엑스존은 사이트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맥락과는 상관없이 청소년에게는 유해하기만한 '음란'한 사이트가 되고 말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동성애를 다루는 인터넷 콘텐츠는 앞으로 계속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되어지고 검열되어지며, 강제적으로 차단되어 질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그 어느 동성애사이트 하나 대한민국의 인터넷 공간안에 자유롭게 견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이반시티'(www.ivancity.com)의 대화실'도 또 어느날 갑자기 접속조차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사이버 공간은 이제 없다.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없이 모두 모여 우리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어우러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버 공간은 이제 대한민국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하다. 청소년만을 위한, 혹은 성인만을 위한 콘텐츠로 정확히 양분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법의 감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나이를 떠나 자신의 취향이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이제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보장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금까지 보다 더 철저하게 제한받게 생겼다. 이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인가?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마땅하지만 보호를 빌미로 하여 그들의 정보선택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여서는 안된다. 엄청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화실과 게시판에 넘쳐나는 생기말랄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심중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더 이상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없을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명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통념화 되지 않은 성적지향(sexidentity)이라는 이유를 들며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삶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손보고 넘어가야 할 우리들의 숙제인 것이다

평화는 모두가 원한다!!! (반전집회 참가이후...)



10월20일 서울역광장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분주했다. 미국이 아프간침공이후 언론에서만 접한 것이 전부인줄 알았던 동성애자들도 이날 집회를 통해 평화가 인종, 성별, 성적지향을 떠나 모두에게 너무나 간절한 일임을 실감하였고 또한 미국이 과거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 사진2 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평화대행진

전쟁반대

화창한 주말 오후...직장을 마치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서울역에 도착 하여보니 집회는 벌써 시작되어 있었고 수많은 단체에서 가지각색의 깃발을 뽐내듯 휘날리며 진지하게 행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난 집회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라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애인이 있기에 용기를.....*^^*사방에 중앙방송(MBC,KBS,동아,조선등...)카메라들이 집회를 취재하느라 바쁘게 찍어 대고 있어 그걸 피하느라 진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 처음엔 애인과 같이 있을수 있다는 생각에 동참한 집회 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자신이 너무도 작은 일에 힘들어 하고 엄뎌여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또 레인보우 깃발을 앞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같이 행진하며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사회의 중심에 일부분으로 당당히 일어 설 그날을 상상해 보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L.I.H

평화실현

동인런 깃발에 무지개를 달고 참여하게 되었다!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던 시위의 현장에... 그것도 "동성애자 인권연대"글귀가 선명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걸보며.... 아! 내가 이땅위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뿌듯 했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어느단체에서 왔냐고 물어봤다면 "동성애자 인권연대요"라고 당당히 말했을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동성애자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눈빛을 보냈겠지..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 참여하는건 값진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앞에 당당히 드러내놓고 참여 하는건 더욱 값진일이 아닐까하고 생각해본 자리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Y.H.K

동/인/련으로 오세요...